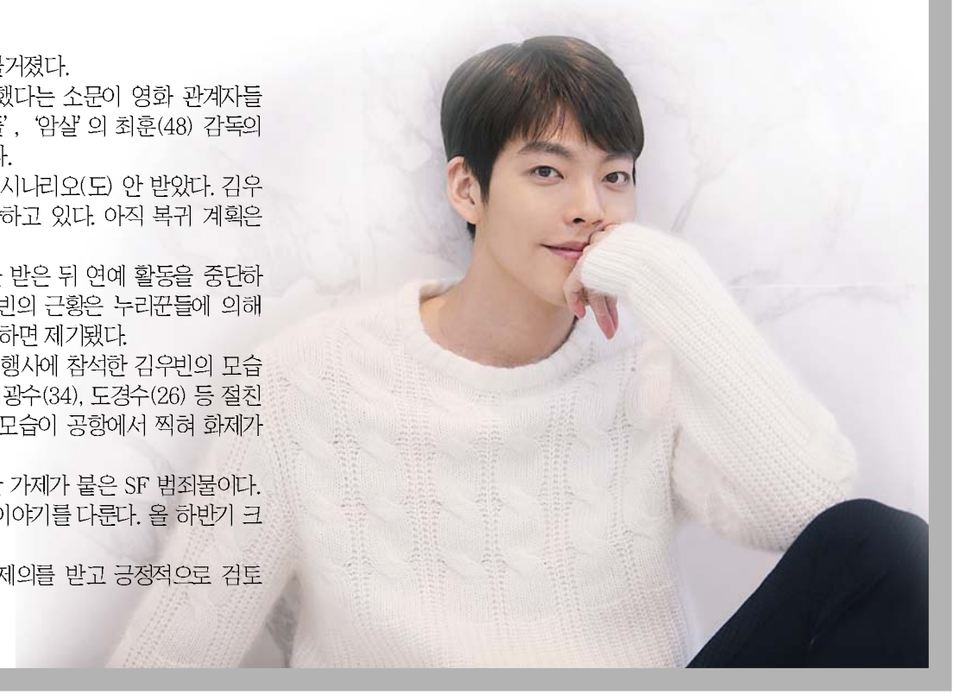
# 김우빈 "컴백 아직…건강 회복 집중"

## 최훈 감독 새 영화 시나리오 검토 소문 돌아…전지현도 출연 물망



영화배우 김우빈(30)의 복귀설이 다시 불거졌다.

김우빈이 영화 시나리오를 보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영화 관계자들 사이에 돌고 있다. 컴백작은 '도둑들', '암살'의 최훈(48) 감독의 새 영화가 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김우빈 소속사 관계자는 그러나 "시나리오(도) 안 받았다. 김우빈 배우는 현재 건강 회복에만 집중하고 있다. 아직 복귀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김우빈은 2017년 비인두암 진단을 받은 뒤 연예 활동을 중단하고 치료에 집중해 왔다. 그동안 김우빈의 근황은 누리꾼들에 의해 꾸준히 포착됐고, 복귀설 역시 잊을만 하면 제기됐다.

지난 5월 조인성(38)과 함께 정토회 행사에 참석한 김우빈의 모습이 불교방송 BTN에 포착되기도 했다. 이광수(34), 도경수(26) 등 절친들과 함께 해외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모습이 공항에서 찍혀 화제가 되기도 했다.

김우빈이 거명된 작품은 '외계인'이란 가제가 붙은 SF 범죄물이다. 2019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외계인의 이야기를 다룬다. 올 하반기 크랭크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전지현(38)도 같은 작품에 출연 제의를 받고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송중기 · 송혜교 이혼 아픔없다?

### 각각 영화 '승리호' 촬영 · 中화장품 행사 참석

탤런트 송중기(34) · 송혜교(38)가 이혼의 아픔을 딛고 일에 매진한다.

송중기는 5일 영화 '승리호'(감독 조성희) 첫 촬영을 시작한다. '송송부부'의 이혼 소식이 알려진 후 촬영 스케줄 변동이 예상됐지만, '승리호'는 3일 크랭크인 후 예정된 스케줄을 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승리호'는 국내 최초 우주를 배경으로 한 SF 영화다. 송중기는 돈이 되는 일은 무엇이든 다 하지만 언제나 알거지 신세인 승리호의 문제적 파일럿 '태호' 역을 소화한다. 조성희(40) 감독과 '늑대소년' 이후 7년 여만에 다시 만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송혜교는 6일 자신이 모델로 활동 중인 화장품 브랜드 설화수 중국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연초부터 예정된 행사이며, 송혜교는 이미 중국으로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설화수가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 공지를 올리면서 이 사실이 알려졌다. 현재는 해당 게시물이 삭제된 상태다.

송혜교는 19년째 아모레퍼시픽그룹 화장품 모델로 활동 중이다. 에뛰드하우스(2001~2005)를 시작으로 이니스프리(2006~2007), 라네즈(2008~2017), 지난해부터 설화수의 모델로 활약하고 있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2016)를 통해 애인 사이로 발전했다. 2017년 10월 결혼식을 올린지 1년8개월여 만에 파경을 맞았다.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는 지난달 27일 "송중기씨를 대리해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알렸다.

송혜교 소속사도 "송혜교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며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 김태호PD+유재석 새 예능, 27일 방송

### MBC '놀면 뭐하니?'

MBC 김태호 PD의 새 예능 프로그램 '놀면뭐하니?'가 27일방송된다.

MBC는 "김 PD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참여하는 '놀면 뭐하니?'가 27일 저녁 6시30분 첫 방송을 시작으로 시청자들을 찾아간다"라며 "방송 전 주인 20일 유튜브 '놀면 뭐하니?' 채널에 업로드된 영상을 재편집한 '놀면 뭐하니? 프리뷰'가 먼저 방송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놀면 뭐하니?'는 스케줄이 없는 날 "놀면 뭐하냐?"라고 말하는 MC 유재석(47)에게 카메라를 맡기면서 시작된다. 6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첫 콘텐츠 '릴레이 카메라'가 공개된 바 있다.

제작진은 "새 릴레이 카메라를 27일 TV를 통해 공개하고 이후에도 '놀면 뭐하니?'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들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 윤유선, '녹두전' 전미선 빈자리 채운다

탤런트 윤유선(50)이 KBS 2TV 월화극 '조선로코-녹두전'에 투입된다.

'녹두전' 측은 5일 "윤유선이 전미선의 후임으로 캐스팅됐다"며 "긍정적으로 출연을 논의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녹두전'은 미스터리한 과부촌에 여장을 하고 잠입한 '전녹두'(장동윤)와 기생이 되기 싫은 처자 '동동주'(김소현)의 이야기다. 만화가 혜진양의 동명 웹툰이 원작이다.

애초 전미선이 기방의 행수인 '천행수' 역에 낙점됐다. 지난달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 절친한 윤유선이 빈자리를 채우게됐다.

9월 방송예정인 '녹두전'은 이미 첫 촬영을 시작했지만, 전미선이 찍은 분량은 없다고 한다. '녹두전' 측은 "곧 촬영을 앞두고 있었는데 비통한 마음"이라며 "전미선 배우에게 깊은애도를 표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추모했다.

뉴시스

## 띠로 보는 오늘의 운세

▶쥐띠
남의 통제를 싫어하고 홀로 움직이기를 즐기니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갈등이 심하겠다. 부당하다고 느끼면 부모에게도 대드는 성질이구나. 반항심을 자제 함이 좋을 듯. ㅅ, ㄹ, ㅍ성씨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면 남쪽에서 행운이 올 수.

▶소띠
근면성실한 것은 좋으나 때로는 당돌한 성격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 혼자서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끝까지 함구함이 좋겠다. ㅅ, ㅁ, ㅇ성씨 여자는 시집식구와 언쟁주의. 남자는 처가에 신경 써라. 투기는 불길하니 생각도 말 것.

▶범띠
공포와 허탈감으로 불면증이나 노이로제에 시달리며 심리적인 압박이 심할 듯. 혼자서 제아무리 잘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 주변의 인정과 보조가 있어야 내가 커 나갈 수 있음을 명심할 때다. 돼지, 원숭이띠와 함께 함이 좋을 듯.

▶토끼띠
분산된 힘을 한 곳으로 모아 잠재되어 있는 저력을 한껏 발휘할 때다. 신념을 굽히지 말고 소신껏 밀고 나가면 대성할 수다. 애정에는 국경이 없다지만 올라갈 수 없는 곳은 삼가라. 나를 편안히 해줄 행운의 여신을 동쪽에서 찾아라.

▶용띠
남에게 의지해서 일확천금을 바라지 말고 자신의 노력으로 성취하라. 뿌린 자만이 수확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남들은 하나도 벅차 힘이 드는데 둘셋씩 챙기느라 급하고 불안하구나. 북, 동쪽 사람에게 어려움을 말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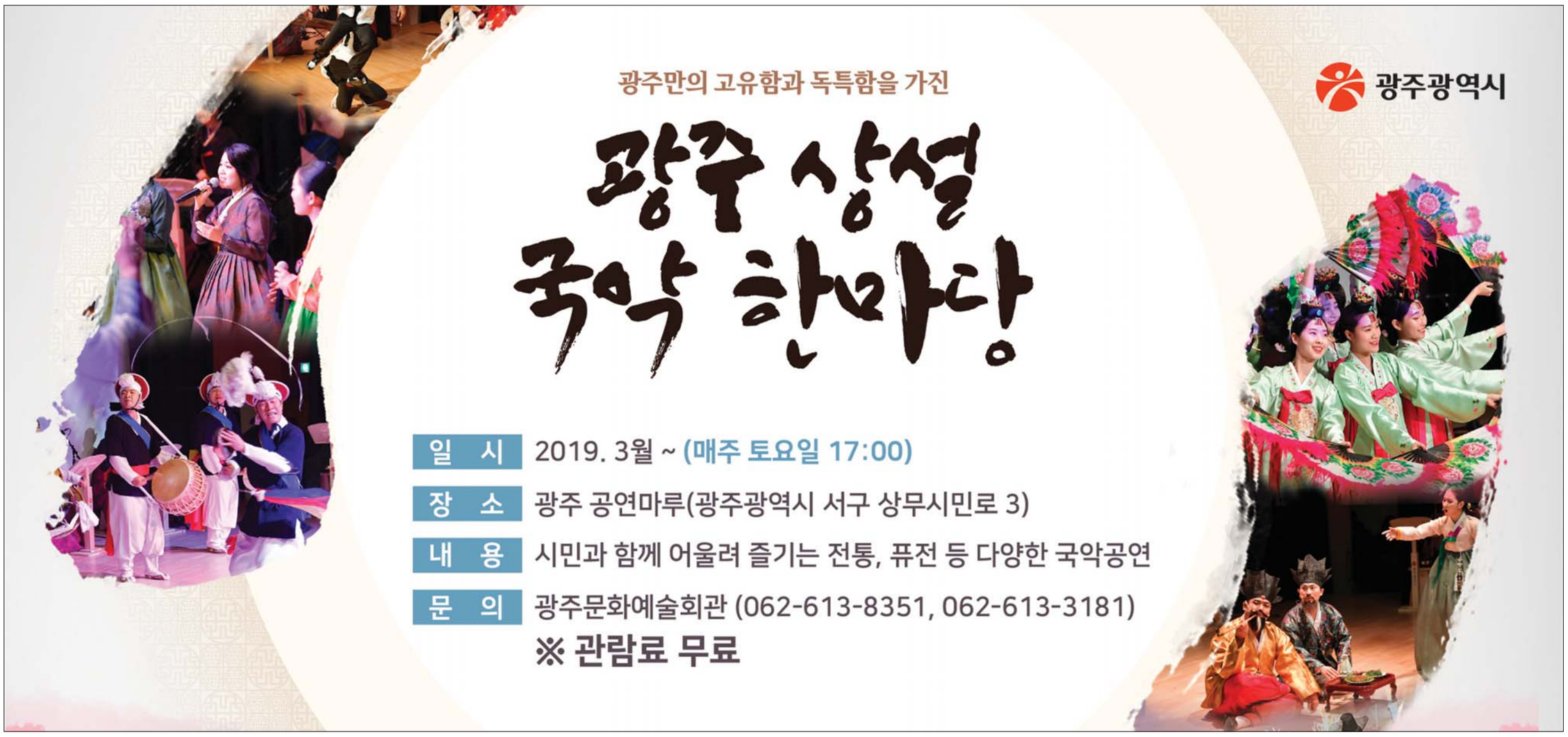
▶뱀띠
상대의 마음을 파악해 보지도 않고서 결정을 해버리면 서로가 불행하다. 능력에 맞춰 처신하라. 늘어만 놓으면 감당하기 힘들지 않은가. 여자 복이 많으니 아내에게 큰 관심을 가져라. 부부화목으로 사업도 대성할 수.

▶말띠
욕심이 지나치면 자기최면에 빠져서 오만해지기 쉽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깨달아야 한다. 해가 지는 서쪽에 노을이 지면 다음날 날씨가 맑음을 알 수 있다. 나의 미래를 예측해 보라. 2, 7, 11월생을 사랑하는 자 그의 고마움을 알 때.

▶양띠
직장에서 기분 좋은 날이다. 본인의 능력을 인정받고 찬사 들을 수. 과시보다는 겸허한 자세가 요구된다. 사업이 흔들린다고 소홀히 하고 사랑하는 사람까지 미워한다면 큰 실수다. ㅅ, ㅈ, ㅇ성씨에게 도움을 청하라.

▶원숭이띠
많은 것에 너무나 집착하다 보면 신경성 노이로제에 걸릴 우려 있다. 건강을 위해서 지나친 생각은 버리고 휴식을 취함이 좋을 듯. 주식이나 투기에 한 번 손을 대도 무방하나 더 큰 욕심은 불행을 초래한다. 동쪽 사람 조심.

▶닭띠
세상을 살다보면 나도 모르게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평생을 후회 속에서 살 수 있으니 신중히 처신하라. 홀로 있으니 많은 유혹이 오지만 잘못 받아들이면 후회할 뿐 빠져나올 수 없겠다. 1, 2, 7월생 애정의 갈등 겪을 수.

▶개띠
천재와 둔재는 노력의 종이 한 장 차이다. 자기 믿음이 지나치면 주위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게 된다. 부부간의 사랑도 서로 이해하고 위해주는 진실이 있어야 한다. 자녀도 사랑으로 감싸주어야 이탈을 막을 수 있다.

▶돼지띠
살다보면 넘어야 할 산이 굽이굽이 많기만 하다. 어려움을 슬기롭게 넘기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 한 번 찾아오는 운을 놓치게 되면 또 다시 잡기란 힘든 것. 4, 8, 11월생 서두르지는 말되 순간의 기회는 포착하라. 승산이 보인다.